# 이혼과 재혼에 대한 고찰

기 동 연
(신대원 3)

목 차

Ⅰ. 서론
Ⅱ. 이혼에 대한 초기 교부들의 견해
Ⅲ.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시대 이후의 이혼에 대한 견해의 변화
Ⅳ. 논란의 핵심 구절에 대한 주석
Ⅴ. 현대적 적용
Ⅵ. 결 론
참고 문헌

## Ⅰ. 서론

### Ⅰ-1. 문제 제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일부일처제를 허용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제도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변질되었고, 라멕이 창세기4 : 19절에서 두 아내를 취한 이래로 끊임없이 일부다처제가 생겨나며, 또한 이혼과 재혼이 생겨나게 된다. 성경은 이미 라멕의 두 아내를 취함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대한 위반이며 죄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이혼은 끊이지 않았다. 열방 세계에서도 이혼은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과 재혼이 허용되었음을 고대 근동 문헌은 보여준다.[1]

고대에서 이혼과 재혼이 허락되었더라도 이것은 극히 소수의 현상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혼과 재혼의 정도는 도를 더해 갔고, 마침내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미국에서 이혼율은 거의 50%에 이르며, 유럽 지역에서는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이미 이혼을 경험한 가정은 30%를 웃돌고 있다. 죤스토트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이혼율이 무려 600%나 증가하였다고 한다.[2]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이혼율이 배로 증가하여 지금은 약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조선 일보는 지난 9월에 보도한 바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혼율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위에서 예로 들은 나라들은 비교적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고 있거나 한때 기독교가 국교나 다를 바가 없었던 나라들이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자본주의 제도와 이로 인한 개인주의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에 대해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왜 교회는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이혼에 대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제각기 다르거나 바른 성경 주석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관용을 베풀어 교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데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간여하고자 해도 이미 교인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고 처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 Ⅰ-2. 논 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따라서 인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책임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존하는 존재이며 이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루신 결과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육과 번성의 역할과 피조세계의 관리자적 역할을 하게 하셨다.[3] 이 결혼 관계는 인간의 자유로운 상호 선택으로 인해 발효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짝지으신 것이다.

결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기도 한다. 이것은 적절한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은 단지 한쌍의 남녀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심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간은 먼저 하나님께 결혼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다음에 부부 상호간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결혼관계는 완전하며, 배타적이며 또한 항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4] 예수님께서 창세기 2 : 24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은 비록 인간이 그 당사자일 지라도 인간이 나눌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것을 성경 주석과 초대 교회의 전통을 통해 이를 밝히는 것이 이 논고의 논지가 되겠다. 이혼에 관한 문제를 살필 때 오직 성경에 굳게 서야 하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된다.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멈추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또한 멈추어 서야만 한다.

### Ⅰ-3. 연구방법과 범위

결혼에 관한 주님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지 않는 지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그리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소고에서는 교부들이 신약에서 받은 바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이것이 중세를 지나면서 어떻게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의 이혼에 관한 관점이 제각기 다른 이유가 그릇된 성경 주석에 기인함을 밝히고 정확한 주석을 시도할 것이다. 주석은 신명기 24 : 1~4절, 마태복음 9 : 1~1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집중될 것이다. 마태복음 9 : 1~12절과 고린도전서 7장을 주석할 때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주석하지 않고 논쟁이 되고 있는 핵심 부분에 주석의 초점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100%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주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대 교회가 결혼과 이혼 재혼 문제와 관련하여 교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 II. 이혼에 대한 초기 교부들의 견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불가피하게 그들 세대의 문화적, 사회적, 철학적,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한계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의해 씌워진 안경을 통해 성경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성경 본문을 주석하는데 영향을 받고 있을지 모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초기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참고하는 것은 뜻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견해를 살피기에 앞서 초기 교부들의 해석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권위는 오직 성경만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초기 교부들도 성경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부들이 말하는 교리나 관행이 성경자체로부터 증명될 수 없는 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옭아매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의 성경 해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20세기의 독자들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를 원한다면 재해석해야만 하고 그래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반해, 초기의 신약 성경 독자들은 성경의 말씀이 지닌 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언어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시간적으로 복음서가 기록된 때에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교부들은 아무래도 헬라어 문법과 구문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와 사건들이 지닌 바 원래의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마태복음 5 : 27~32절과 19 : 3~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이 지닌 바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5] 그리고 헬라어를 말하는 교부들은 현대 학자들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유창하게 그들의 모국어 헬라어로 성경에서 얻은 교훈을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석의를 할 때 다소 혼란스럽기도 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완벽하게 분명했을 것이다. 이것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연유로 초기 교부들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주석들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 II－1. 허마의 목양서 (Shepherd of Hermas)

신약 성경들이 기록된 후 1세기가 지나지 않은 때에 기록된 가장 최초의 이혼에 관한 글은 허마의 목양서에서 발견된다. 학자들은 이 책의 연대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쟁하여 왔지만, 늦어도 140~150년경으로 추정되며 학자들에 따라서 1C말에 기록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아마도 로마에 거주하는 허마라는 사람이 30~40년에 걸쳐서 이 책을 기록한 것 같다. 흥미로운 것은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그리고 아다나시우는 허마의 목양서를 준정경으로 생각했었다.[6] 이혼과 재혼에 대한 허마의 말은 분명히 교부 개인의 학문적 견해가 아니라 A. 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회의 이전 기간에 절친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를 증거하고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간음을 범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물었을 때, 허마는 자신이 하늘 목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Mandate 4.1.4~1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4. 내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선생님 만약 한 남자가 주님을 믿는 한 여성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녀가 간음을 범한 것을(*εν μοχεια τινι*)발견했을 때 그가 그녀와 계속 산다면 죄가 됩니까? 5. 그가 말했다. 그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는 죄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그녀의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륜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 남편이 그녀와 함께 산다면, 그러면 그는 그녀의 죄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녀의 간음에 한 파트너가 된다.(*κοινονος τες μοιχειας αυτες*) 6.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가 이러한 정욕에 계속 빠져 있다면 그 남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επιμεινε το παθει τουτο*) 그가 말했다. 그녀를 내어 보내게 하라 그리고 그 남편은 혼자 살게 하라(*απολισατο αυτεν και επ εαυτο μενετο*). 그러나 만약 그의 아내를 내어 보낸 후 그가 다른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도 역시 간음을 범한 것이 된다. 7. 내가 말했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 그 아내가 쫓겨난 후 그녀가 회개하고 남편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8. 그가 말했다. 만약에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며 스스로 큰 죄를 짊어진 것이 된다. 오히려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가 회개한 배우자를 다시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빈번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오직 한 차례의 회개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남편은 결혼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적절한 행동 지침이다. 9. 그가 말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육체를 더럽힌다면 그것은 간음일 뿐만 아니라, 이교도처럼 행동하는 자마다 간음을 범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떠나서 그와 함께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역시 그의 죄를 공유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경우에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이든 혼자 남으라고 네게 명령하는 이유도 이것이다.[7]

이 구절에서 허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록하고 있다. 첫째로, 아내가 간음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아내와 함께 계속 살아서는 안된다. 둘째로, 그 남편은 혼자 살고 있어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대문이 아내의 회개에 대비해 열려 있게 된다. 셋째, 만약 간음한 아내가 회개하고 남편에게 돌아온다면 그는 그녀를 다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가 된다. 넷째, 같은 원리들이 간음한 남편과 함께 사는 순결한 아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허마의 목양서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간음을 행한 배우자와 함께 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 재혼을 향한 티켓에 해당하는 현대의 이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배우자를 내어버림'은 결혼 관계의 완전한 청산이 아니라, 무죄한 배우자가 혼잡한 성관계에 수동적으로 참여함으로 동일한 간음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색채가 강력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파혼이 언급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결합하게 하는 '헤어짐' 즉 현대적 용어로 별거의 성격이 강하다. 왜 허마는 이러한 가르침을 제시했을까? 그는 신약의 이혼에 관한 말씀은 결코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πορνεια*의 이유로 배우자를 내어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라는 구절이 허마에게는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 들여졌음이 분명하다.

### II－2. 저스틴 마터 (Justin Martyr)

저스틴은 여러 가지 이방 철학들 속에서 진리를 추구한 후 AD 130년경에 기독교로 회심했다. 그의 회심 후 곧 그는 에베소에서 로마로 이사했고 거기에서 그는 기독교 철학학교를 개설했다. 저스틴은 165년경 순교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대담하게 변증했다. 저스틴의 저서들은 변증적인 목적과 아울러 교리문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저스틴이 150년경에 기록한 첫 변증서 15~17장에는 별거 후 두번째 결혼한 자에 대한 저주를 포함하고 있다. 저스틴은 15장에서 성적 도덕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의 가름침의 실례들을 제시하면서 마태복음 5 : 28, 29 그리고 32절 또는 누가복음 16 :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9 : 11~12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인간적인 법에 따라 이중결혼을 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한다.



윌리암 헤쓰에 따르면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이것은 일부이처제를 금지한다. 둘째로 이것은 결혼을 두차례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죽음 후 하는 재혼을 죄로 여긴다. 셋째로 이것은 별거 후 재혼을 금지하고 있다. 넷째로 이 구절은 어떠한 종류의 재혼이라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헤쓰는 이 네가지 중에서도 세번째가 유력하다고 한다.[8]

제2변증서에서 저스틴은, 그리스도인은 간음한 배우자와 갈라져야 한다는 허마의 가르침을 확언한다. 그는 둘 다 이방인인 부도덕한 남편과 함께 사는 부도덕한 여자의 경우를 묘사하고 있다. 회심 후 그 아내는 그녀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의 부도덕한 생활 방식 때문에 그와 이혼하기를 바랬지만, 친구들이 남편이 자기의 생활을 바꿀지도 모르는 희망이 있다고 설득한 후 그와 계속 생활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알렉산드리아로 갔는데 그녀는 그의 행실이 이전 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고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그를 떠났다. 비록 그녀는 세속법률 아래서 이혼 증서를 사용했지만 저스틴은 그녀가 재혼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허마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부도덕한 배우자와 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로 남아 있어야 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심한 여인이 비록 이혼 증서를 쓰긴 했지만, 그래서 부도덕한 남편의 방탕한 성생활에 동참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려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옛 남편과 부부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부부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다른 데 시집가는 것은 간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스틴이 재혼을 금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가 지속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II－3. 아데나고라스

AD 177년경 아데나고라스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루키우스 아우렐리우스 코모두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탄원서를 썼다. 여기에서 아데나고라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결혼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 즉 혼자 살든지 아니면 한차례의 결혼만 해서 살든지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결혼은 명백한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순결을 취했던 여자와 이혼하고 그녀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첫 아내의 권리를 강탈하는 자는 비록 그녀가 죽었다할 지라도 그는 숨겨진 행음자이며 하나님의 손을 훼방하는 자 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족 번식을 위해 의도된 육신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입니다.[9]

당시 로마 상류 사회는 무분별한 이혼과 재혼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혼하기 위해 재혼하고 재혼하기 위해 이혼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러한 때에 아데나고라스는 기독교의 높은 규범을 로마인의 생활 방식과 비교해 보여주기 위해 두번째 결혼은 명백한 간음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로마 사회는 재혼을 허락했지만 성경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데나고라스는 마태복음 19 : 9절 —예외 구절을 생략하고— 이나 마가복음 10 : 11절을 문자적으로 인용하면서 마지막 두 단어(επ αυτεν= against her)를 빠트리고 있다. 아데나고라스가 마태복음 19 : 9을 인용하고 있다면 왜 그는 인용구절을 빠뜨렸을까? 아니면 예외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 대신에 마가복음 10 : 11절을 인용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데나고라스가 마가복음을 인용한 것은 이것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아데나고라스가 마태복음 19장을 인용했더라면 로마인들은 이것을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는 구절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소위 예외 구절로 언급한 것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데나고라스는 신약의 이혼에 관한 가르침이 허용적 입장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가복음을 인용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데나고라스는 마19장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가 마태복음의 소위 예외 구절을 몰랐을까? 윌리암 헤쓰는 만약에 아데나고라스가 예외 구절을 알았다면 이것이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는 조건부에만 해당하고 재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았을 것이다고 말한다.[10] 그러나 아데나고라스에게 마태복음 9 : 9의 예외 구절이 유태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로마인들과는 달리 이 예외 구절은 허용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이는 곧 이혼 불가의 입장에 그 무게의 비중이 실려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따라서 아데나고라스는 마가복음을 인용했을 것이고 또 마태복음 9 : 9을 인용했더라도 의도적으로 로마인들이 곡해하지 않도록 이를 삭제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데나고라스가 여기에서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재혼의 허용 여부보다는 첫번째 아내와 맺은 결혼의 의의와 그리고 그 결혼관계를 종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데나고라스는 한번의 결혼, 그 이상은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은 생육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말라기 2 : 14~16절의 말씀을 생각케 한다.[11] 하지만 아데나고라스가 아내가 죽었을지 라도 재혼하면 안된다고 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7 : 39절에서 한[12]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않지만 그가 이 구절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반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데나고라스는 예수님께서 두번 결혼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주저하지 않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 II —4. 안디옥의 데오빌루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데오빌루스는 안디옥의 여섯번째 주교였다. 그는 신약성경의 영감을 분명하게 말한 첫번째 교부이며 마태복음 5 : 32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180년경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험담한 그의 친구 아우톨리쿠스에게 기독교를 변증한 글을 썼다. 이 글에서 데오빌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복음서는 순결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그녀와 간음하였다(마 5 : 28).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을 범하였으며 그리고 πορνειας를 제외하고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자마다 그녀가 간음하도록한 자이다(마 5 : 32).[13]

데오빌루스는 마태복음 5 : 27~32절에 있는 본문을 한 본문으로 바르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5 : 27~32절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31~32절을 따로 떼어 이혼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마태복음 5 : 32절을 인용하면서 구절의 순서를 바꾸어 놓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πορνειας로 인한 분리는 양보할 지라도 재혼은 절대로 금지시키고 있다고 보려할 때 생기는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해 데오빌루스가 이렇게 했다고 주장한다. 또는 데오빌루스는 저스틴의 First Apology와 같은 순서로 먼저 누가복음 16 : 18절을 인용하다가 그 다음에 마 5 : 32a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14]

어떤 견해로 보든지 간에 데오빌루스는 소위 예수님의 조건부 이혼에 대한 말씀을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무슨 이유로든 이혼 당한 사

람에게 재혼하는 것이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며 결혼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다. 비록 간음이 부부 생활의 분리와 중단을 초래할 지라도 이것은 결혼으로 형성된 결합을 해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II－5. 이레네우스

140～160년 사이에 소아시아에서 태어난 이레네우스는 서머나에서 자랐으며 거기에서 사도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을 보았고 또 그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한다.[15] 그의 유명한 작품 '이교도에 대항하여'에서 이혼은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단순히 주어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데나고라스처럼 이레네우스는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본문과 나란히 창세기 2 : 24절의 말씀이 결혼관계의 항구성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의 기초였음을 덧붙인다. 이레네우스와 아데나고라스에 따르면 저스틴의 저서들은 그들의 사상 가운데 많은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16]

### II－6.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AD 3세기에 이르면서 결혼의 가치를 평가 절하한 다양한 이단들에 대항하여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복음서의 이혼에 관한 본문들을 아주 상세하게 주석하면서 기독교인의 결혼관을 설명한다.

클레멘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πορνεια*를 제외하고 네 아내를 내어버려서는 안된다는 말씀 속에 그 관계를 해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음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살아 있는 동안 분리된 한편이 결혼하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πορνεια*가 분리에 대한 유일한 허용적 근거이며 어느 한편에게도 재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전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혼이 분명히 배제되고 있다. 클레멘트는 한층 더 한쪽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헤어진 어느 한쪽의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클레멘트의 제자 오리겐은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주석하고 있다.

> 그러나 한 여자가 간부이고 또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더라도, 이전 남편이 여전히 살아 있으면 그녀 그리고 그녀와 결혼한 남자는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세주의 선언에 따라 그녀와 간음하고 있는 것이다.[17]

클레멘트가 마태복음 19 : 12절에 있는 고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혼과 재혼을 금지시킨 바로 앞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흥미롭다. 마태복음 19 : 12절은 결혼을 싫어한 노스틱 이단들이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즐겨 채택한 증거용 본문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 이단들은 결혼은 간음이며 예수님 자신도 혼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 : 12절에서 금욕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항하여 클레멘트는 마태복음 19 : 11～12절을 인용하여 말한다.



> 노스틱주의자들은 그 본문의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몇몇 제자들이 그에게 만약에 여자에 대한 관계가 그러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12절의 말씀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만이다. 질문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한 사람의 아내가 *πορνεια*로 인해 저주를 받았을 때 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는 지 였다.[18]

클레멘트는 영지주의자들이 마태복음 19 : 12절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은 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여 재혼을 자제하는 이혼자들이다고 한다. 클레멘트는 9절에 있는 부도덕 때문에 헤어진 자들과 12절에 있는 고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클레멘트는 마태복음 9 : 10～12절의 말씀을 엄밀하게 주석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사실상 클레멘트는 고자들이라는 말을 그의 저서에서 5～6번 사용하고 있으며, 이 말을 절제와 금욕에 관한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단어들을 성관계를 자제한다는 좁은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전 생애의 수련과 행동으로 사용한다.

사실상 마태복음 19 : 12절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혼자 살도록 부름 받은 것으로 해석한 것은 클레멘트에서 있어서는 큰 단점이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를 대항하기 위해 역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과부와 홀아비의 재혼에 관한 클레멘트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클레멘트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고린도전서 7 : 8～9, 32～35, 39～40)을 다소 넘어가고 있다. 그는 관념적으로 과부와 홀아비는 재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절제력을 상실한다면 그들은 다시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클레멘트는 이러한 경우에 처한 사람에 대해 덧붙인다.

> 구약에 따라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지만,(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복음서 윤리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한 형편대로 혼자 살면서 죽음에 의해 벗어 버린 결혼의 멍에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면서, 이로 인해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을 섬기는데 자유롭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도하신 목적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늘 영광을 얻는다.[19]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금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의 마태복음 19 : 10~12절의 말씀에 대한 주석은 점차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그 시대의 배경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향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러서는 사제의 금욕생활에 관한 성경 구절로 사용되게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재혼이 금지된 헤어짐과 단회적 결혼관이 유지되고 있다.

### II -7. 터툴리안

터툴리안은 2세기 후반에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으며 최초의 가장 위대한 라틴 신학자이다. 결혼의 항구성을 다루고 있는 그의 저서들은 그의 생애의 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Ad Uxorem는 그가 정통적인 신학을 따르던 시기인 A. D. 203년경 기록되었다. 그리고 Adversus Marcionem (208-11)과 De Ehortatione Castitatis(206)는 그가 생애 가운데 몬타니스트 이단에 약간 물들었던 시기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De Monogamia(c. 217)는 몬타니스트 이단에 완전히 젖었던 시기에 기록되었다.

초창기 저서에서 터툴리안은 개인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저술하고 있다.[20] 몬타니스트 신분으로서 터툴리안은 결혼의 유대성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후까지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터툴리안의 작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의 항존적 결혼관을 증거하는 원자료로써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의 초기 작품 중에 하나에서 그는 기독교인은 배우자가 간음을 행한 경우 헤어져서 과부와 흡사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희망은 간음한 배우자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그러나 인내는 모든 종류의 건전한 교훈들 중에서도 당연 선두를 차지하므로, 결혼 생활이 단절되는 동안에--내가 의도하는 바로는 그것은 남편이든 아내이든 과부 생활을 계속 지키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인데--그녀는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애원하여 회개를 설득함으로 어느날 그를 구원에 들어가게 한다면 이는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겠는가? 인내는 각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수여하고 있는가! 우선 인내는 간부가 되는 것을 막으며, 그리고 인내는 배우자를 회심케 한다.[21]

다른 말로 하자면 죄없는 배우자는 재혼을 삼가함으로 간음을 범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은 배우자는 회개하게 된다. 터툴리안이 결혼 생활의 단절을 말할때 그는 남편과 아내를 결합시키는 결혼의 유대성의 해체를 의도하지 않고 있다. 그는 모든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관계는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도덕한 일로 헤어진 후에도 그 부부는



남편과 아내로 남아 있다. 그는 죄없는 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Ad Uxorem(그의 아내에게)에서 터툴리안은 두가지 주제를 제기한다. 첫번째 책에서 첫 남편이 죽은 후 재혼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그리고 두번째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교도와 결혼하는 것이 불법임을 다루고 있다. 두번째 책은 이혼 후 재혼에 관한 주제를 취급한 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료에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결혼 생활이 끝장난 기독교인인 여성이 수용해야만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서술하는 일을 이제 막 마쳤다.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대안이 될 만한 행동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이혼이나 남편의 죽음 때문에 금욕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 받았을 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기회를 거부하고 두번째 결혼을 함으로 주 안에서 결혼해야만 하는 규정을 염두에 두지 조차 않는 어떤 여성들의 행실 때문이다.[22]

슬쩍 쳐다보면 터툴리안은 죽음과 이혼을 결혼을 종결짓는 똑같은 근거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터툴리안이 이 문제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의문스럽다. 여기에서 터툴리안이 말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함부로 결정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어투는 규정적이 아니라 서술적이다.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터툴리안은 위의 두 경우에서 재혼을 추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는 이러한 여인들이 주 안에서만 결혼하지 않는데 놀라고 있다.[23] 전체 문장은 주 안에서 결혼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는 이혼 후 재혼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터툴리안은--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도들 가운데 극히 좋아하지 않는--비기독교인 배우자들과의 결혼조차도 항존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끝으로 이혼자들은 재혼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부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터툴리안의 몬타누스주의적 견해의 기초가 되고 있다.

### II -8. 교부들의 증거의 결론

허마의 목양서에서 라틴의 교부 터툴리안까지 살펴본 결과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혼이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짝지은 부부를 사람이 임의로 나누어서는 안된다. 오직 죽음만이 결혼 관계를 종결 시킨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혼이 발생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안는다. 불신 배우자에게 믿는 자가 버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람의 법으로는 이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불신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자가 재혼하면 간음이다. 오직 그는 떠나간 배우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화합하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야 한다. 이들은 또한 간음한 배우자가 회개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역시 간음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배우자의 간음 사실을 알게 되면 헤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헤어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식의 이혼도 아니며 헬라와 로마 그리고 현대인들이 행하는 이혼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이혼과 함께 재혼의 티켓을 얻는 류의 헤어짐이 아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비록 간음의 이유로 헤어지더라도 결혼의 유대성은 계속 유효하며 그리고 간음한 배우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이혼이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 : 9절에서 말씀하신 예외 규정을 포함한 전체 말씀이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이혼을 허락하는 양보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9 : 9절의 예외 규정을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것이고 또한 헬라어 성경이 의도한 원래의 취지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9 : 9절은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헤어짐은 현대적 그리고 이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혼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된다. 굳이 현대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별거'라는 용어가 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진술한 것처럼 헤어진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부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와같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거의 한결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니케아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

## III.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시대 이후의 이혼에 대한 견해의 변화

### III－1. 어거스틴과 중세

어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갈등이 있으며,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민중들이 행하는 것 사이에도 그러하며,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작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것에는 큰 간격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도 성경대로 살지 않았던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 버리는 시대에는 주님께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유사한 상황이 초대교회에도 몰아 닥쳐었다. 이혼은 재혼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했으며, 결혼한 남자보다 결혼한 여자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규범을 제정해 두고 있었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이 신실하지 못한 경우 간음으로 간주되었지만 남자의 경우는 단지 스캔달이었다. 유대주의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했으며 로마법은 결혼한 남자에게 첩을 두는 것을 허용했다. 첫번째 기독교 황제 콘스탄틴이 즉위한 후에도 로마의 결혼법은 별로 바뀌지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초대교회는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신자들은 법을 이용하여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재혼을 했다.

어거스틴의 글 가운데에는 플렌티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시대의 교회의 습관적인 관행을 질의하기 위해 어거스틴에게 편지를 썼다.[24] 그는 성경적 근거들 위에서 완전한 이혼을 정당화 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7 : 39절을 근거로해서 간음한 배우자는 죽은 것으로 고려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무죄한 배우자에게 재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오리겐은 이 시대에 이미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거슬려 이혼과 재혼을 허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25]

일반 교인들의 이같은 관행에도 불구하고 중세에 이르면서 로마 카톨릭은 결혼에 관한 교리를 진전 시키고 있다. 어거스틴은 결혼은 절대적으로 해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무죄한 배우자가 헤어진 이후에 재혼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점차 결혼을 일종의 성례로 보게 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거나 유사하다는[26] 의미에서 일종의 성례 또는 신비였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견해는 논쟁을 거치면서 점점 발전하여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러 결혼을 성례의 하나로 최종적으로 완성시켰다. 아퀴나스는 결혼을 은혜를 전해주는 성례로 취급했다. 당시 로마 카톨릭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를 신자의 삶 속으로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7성례가 있었는데, 결혼은 그 중에 하나가 되었고 다른 6성례와 동등한 것으로 아퀴나스는 생각했다. 바로 에베소서 5 : 32절은 이러한 그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본문이었다. 아퀴나스의 견해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완벽한 결혼 교리가 되었고 4

세기 후 트렌트 공의회는 이것을 절대적인 신앙의 진리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 에라스무스는 이에 반발하고 나선다.

### III－2.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어거스틴이나 제롬이 아퀴나스와 같은 입장에서 결혼을 성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헬라어 신약 성경 주석에서 라틴 벌게이트에 있는 sacramentum은 당시 교회에 의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개념을 내포하지 않고 있다고 주석했다. 에라스무스는 헬라어 성경 제2판에서 에베소서 5 : 32절은 로마 교회가 7성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감추어진 비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견해를 루터도 동일하게 취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로마교의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개혁주의자들과는 달리 로마교 안에서의 종교개혁을 옹호한 것처럼 로마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합리화할려고 시도한다.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은 결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 내부에 이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두가지 형태의 이혼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어거스틴과 제롬에 의해 옹호되었던 침대로부터의 분리, 즉 별거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결혼은 출발부터 불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는 원인 무효 즉 절대적으로 효력이 중지되어야만 하는 결혼이다.

에라스무스는 교회가 금지한 18가지 불법 결혼 규례들을 열거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결혼에 관한 신약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며 또한 이것들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바 출발부터 불법인 결혼에 대한 근거를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고 이러한 결혼 관계를 무효화시킬 방법과 수단을 성경에서 찾을려고 희망했다.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그는 이혼에 관해 예수님과 사도들이 언급한 본문을 정확하고 아카데믹한 주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정 해석하여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했으며 또한 그는 이를 통해 결혼 관계에 대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 규범을 얻을려고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인본주의적 안경을 끼고 이 본문들을 해석하고 있다. 그는 재혼의 권리가 없는 이혼은 자연의 평등성과 전적으로 배치되므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고 믿었다.[27]



### III－3. 루터

루터는 사실상 에라스무스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혼에 관한 본문을 주석하면서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간음과 유기의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강조한다. 불신 배우자에 의해 버림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인 한에서 재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외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오직 죽음만이 결혼 관계를 해소시킬수 있으며 남은 배우자는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간음은 범법자를 하나님과 그의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죽은 것으로 만든다.

다른 개혁자들처럼 그는 모세가 간부를 죽일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면서 현 권력 기관도 마찬가지로 간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행할 수 없다할 지라도 그 간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루터는 생각했다. 이것이 불신 배우자에게 버림 받은 경우에 믿는 배우자가 재혼하도록 허락해야한다고 루터가 주장한 이유이다.

그런데 루터는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훨씬 더 멀리까지 나아가고 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 두고 훌쩍 떠나버린 그런 불한당이라면, 그는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리고 간음에 해당하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28] 완고함 때문에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유사하다. 만약에 여자가 한차례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고집불통이라면 아하수에로 왕처럼 남편은 와스디같은 그녀를 내어 보내고 에스더 같은 아내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루터는 결혼을 세속적인 일로 보았다.

루터의 이혼에 관한 성경 구절 주석들은 국가는 결혼 문제들을 취급할 권리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권위를 가진다는 자신의 견해에 한결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 루터는 두 왕국 개념을 가지고 이혼 문제는 세속 권력의 영역안에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혼 문제는 세속 정부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러한 형벌을 집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루터의 개념은 다른 거의 모든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의 주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III－4. 칼빈과 다른 개혁자들

개혁자들의 주석은 칼빈을 기점으로 다시 보수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칼빈의 주석은 루터에 아주 가깝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적용면에서는 한층 더

엄격하다.

칼빈은 마태복음에 있는 'πορνειας를 제외하고'라는 구절을 주석하고 이에 입각해서 신명기 24 : 1절과 말라기 2 : 14을 주석한다. 칼빈은 다른 개혁자들보다 신명기 24 : 1절을 주석할 때 더 정확하다. 그는 모세가 이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을 제한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칼빈은 남편이 아내에게 준 이혼 증서가 그녀의 순결을 입증하였으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칼빈은 신명기 24 : 1~4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에는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한가지 대의명분이 있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간음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세가 말한 이혼은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관계를 해소한다고 보았다.

칼빈의 주석적 결과를 조직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데오도레 베자에게 남겨졌었다. 그리고 베자는 이혼에 대해 칼빈보다 더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 베자에 따르면

> 결혼 관계는 해체될 수 없고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간음의 경우이다. 이론적으로 실제로 이혼이란 없다. 왜냐하면 간부는 죽은 것으로 여겨져야만 하기 때문이다.[29]

베자는 고린도전서 7 : 11절은 합법적인 이혼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7 : 15절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두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바울은 간음을 유일한 이유로 만드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 것도 더한 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자는 루터와 칼빈처럼 버림당한 무죄한 신자는 재혼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왜냐하면 버리는 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즉 간음을 행하지 않고는 유기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창기 영국 개혁자 윌리암 틴델은 고린도전서 7 : 15절을 베자처럼 해석했다. 왜냐하면 그는 간음이 발생하지 않은 유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틴델은 그의 주석에서 루터의 기본 입장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루터의 해석이 영국에 도달한 것은 1527년 틴델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영국의 개혁자들은(틴델, 크래머, 그리고 후퍼) 는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이들은 여러가지 이유들을 이혼과 재혼의 근거로 인정하고 허락한 에라스무스를 따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칼빈의 견해를 영국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하는데 반영하지 않는다. 1603년 교회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은 결국 별거와 혼인 무효를 정당화했다.[30]



### Ⅲ-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혼에 관해 언급하는 본문을 가장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밀튼(John Milton 1608~74)이다. 밀튼은 스스로 자신이 결혼법과 관련한 선지자로 여겼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상호 동의에 의해 이혼할 권리를 주장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을 당대의 사람들은 급진적이고 이단적인 것으로 여겼다. 에라스무스 처럼 그는 개혁주의와 인본주의를 혼합하려고 추구했다. 그러한 밀튼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는 밀튼의 해석에 반박했고 그리고 보수적인 칼빈-베자의 해석을 확증했다. 제24장 5~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그것은 순결한 편에게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마 1 : 18~20). 만약 결혼 후에 간음한 일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마 19 : 9; 롬 7 : 2~3)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마 5 : 32).
> 6. 사람의 부패성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짝지워 준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고 여러가지 이론을 연구할지라도 오직 간음이나 교회나 국가 공직자로서도 회복할 수 없는 고의적 버림을 당한 것 외의 어떠한 일도 결혼을 파기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마 19 : 6, 8; 고전 7 : 15)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이요, 질서있는 소송 수속을 받아야 되며, 이때에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맡겨서는 안된다(신 24 : 1~4; 스 10 :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것이 제정되고 난 후 개신교의 신앙과 행습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 그런데 이 고백서의 이혼에 관한 조항은 바로 에라스무스에 의해 시작되어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에 의해 확충된 주석적 전통이 확증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고백서는 당시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로 이어지는 이혼에 관한 이론들은 그 동기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아카데믹한 주석의 결론이라기 보다는 로마교에 대한 반발과 무엇보다도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인본주의적 배경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이 현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외에도 다른 여러 조항들을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였을 것이다.

왜 이들은 초대 교회 교부들과는 전혀 딴 판으로 변했을까? 이들이 결혼의 항구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이혼과 재혼을 인정하기에 급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타협을 하게 했을까? 그들의 시대를

무섭게 휩쓸었던 인본주의 사상은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인본주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고, 바로 이 인본주의 안경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인본주의와 타협한 결과는 교회 뿐만 아니라 세속 사회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관대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기독교인의 견해는 날이 갈수록 혼란의 구덩이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 Ⅲ－6. 현대 신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

이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선배들의 입장을 살펴보자.

현대 학자들은 다음 네가지의 주장들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 첫째는 이혼과 재혼은 모두 안된다. 둘째는 이혼은 부분적으로 되고 재혼은 안된다. 세째 이혼과 재혼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마지막 넷째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과 재혼은 허용된다.

첫째로, 이혼과 재혼은 모두 안된다는 입장은 Carl Laney와 같은 학자들의 입장이다.[31] 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원래 의도하시고 원하셨던 뜻은 결혼이 죽을 때까지 항구적이다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 스스로 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혼을 명령하지 않았다. 신약은 구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한에 불복종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 : 10～11절에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엄격하게 따라야만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래서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떠나서는 안되고 남편들은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된다. 재혼은 과부와 홀아비에게만, 그것도 신자와 행할 때 허용될 수 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이혼에 이어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이혼한 사람에게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이혼한 사람에 대한 유일한 두 성경적 대안은 다시 화해를 하던지 아니면 혼자 지내는 것이다. 만약 이혼과 재혼에 관한 성경적 견해가 오늘날 교회에서 교육된다면 결혼은 훨씬 더 신중해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부부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내어 맡길 것이다. 이혼이 힘겨운 결혼관계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결혼은 더욱 강력하고 오래 유지될 것이다.

두번째 주장은 William Heth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이혼은 가능하지만 재혼은 안된다는 것이다.[32] 사실상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결혼은 항구적이고 평생 관계이다고 생각한다. 만약 별거나 이혼으로 몰고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결혼관계를 회복하도록 권면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기도하며 인내해야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 중에 두가지는 이러한 노력을 명령하고 있다. 첫째는 이혼 문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바울이 이혼 당했거나 이혼한 고린고 교인들에게 권위 있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두가지 대안이었다. 혼자 살거나 화해하는 것(고전 7 : 11).

헤어졌거나 이혼한 기독교인들은 화해의 가능성을 방해할지 모르는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도 피해야 한다. 특별히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용서와 화해를 명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두번째 요소는 구원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불성실함에 대한 대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용서를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은 죄의 능력을 깨뜨렸고 용서가 가능하게 했다.

인간의 생명 속에 있는 항구적인 실재로서의 예수님의 화해를 소유하고 사는 것은 항구적인 실재로서 서로 용서함으로 사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해체할 수 없는 연합 관계를 죄인들에게서 조차 실질적이고 획득할 수 있는 목표로 만든다. 그러나 화해가 불가능하면, 즉 한 배우자가 이미 재혼해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 관계는 그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재혼은 또 다른 간음이 된다. 예수님께서 재혼을 간음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화해가 외관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은 혼자 사는 것이다. 가장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과 헌신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혼당한 신자에 대해 구속의 도구로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려고 추구할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와주어야만 한다.

세번째 주장은 간음과 유기의 경우에는 이혼과 재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Thomas Edgar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33] 그는 고린도전서 7 : 15절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이 구절은 특별히 재혼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의미는 만약에 배우자가 헤어질 것을 집요하게 원한다면 버림받는 배우자는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죄의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죄와 책임감은 간음한 배우자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죄와 책임은 버리는 배우자와 관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운 것을 나누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죄와 죄책은 무죄한 배우자가 아니라 간음자나 버린자와 관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배우자가 이혼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재혼은 이혼의 결과로 생겨

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혼 당한 자들이 재혼하지 않는 것보다 재혼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신 것 같다. 그는 주장하기를 일반적으로 예외 구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해석 방법을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순을 범하는 이유는 그 구절들을 전체로 보지 않을려는 선입견 때문이며 그 구절들은 어떤 예외들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가설에 입각한 것이다고 한다. 따라서 예외를 인정하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러한 도그마적 전체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성경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Larry Richards 같은 이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혼과 재혼이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한다.[34] 그는 이혼과 재혼을 지도하는 6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평생 동안의 결합이다. 이 결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부요하게 한다. 성공적으로 평생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로 돕는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지도하신 성경을 따르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2. 인간들이 죄로 더렵혀 있기 때문에 결혼이 이러한 이상을 달성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악한 마음이 너무 결혼 관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혼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다.

3. 완악함 마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그것은 정신적 신체적 남용, 성적인 남용, 상습적인 간음, 그리고 결혼 관계의 감정적 영적 포기 등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부부가 한 집에 살 때조차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결혼 계약은 한 쪽이나 아니면 양쪽의 합의에 의해 합법적인 이혼이든 아니든간에 포기될 수 있다.

4. 결혼이 실제로 종결되고 안되고와 그리고 이혼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다. 교회법은 누구는 이혼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고 결정할 성경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란 이들에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5. 어떤 이유로든 이혼한 사람은 재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첫번째 결혼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인도를 따라서 재혼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다.

6. 이혼한 후 재혼하는 사람들은 색안경을 낀 멸시를 받지 않고 지역 교회의 삶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의 영적인 은사들은 인정되고 확증되며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은사들에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



받아야 한다.

이혼과 재혼에 관해 전통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이 두번째의 입장이다. 이는 많은 개신교도들이 따르고 있고, 칼빈이나 베자 그리고 웨스트민터 신앙 고백도 이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의 신학자들도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든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에서 항구성을 의도하셨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외를 인정하고 싶어한다. 이들에게는 지금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혼에 대해 어떤 구제책이 없을까 하는 심정일 것이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보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새시대를 선포하고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엄격하게 산상 수훈을 선포하시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다시 양보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행위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값주어 사신 백성들조차 다른 이방인들처럼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방치하고 싶었을까? 이들의 완악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러한 의향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현대적 견해들중에서 성경 본문을 좀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보다 최근에 강하게 그 입장을 밝힌 것이 첫번째의 입장이며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1과 2의 입장은 별차이가 없다. 그리고 첫번째의 입장은 그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해석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제 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성경을 문맥과 배경에 따라서 살피면서 문법적으로나 전체 성경의 의미로 보건대 더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정확한 석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밝혀내겠다. 이미 다 드러났지만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24 : 1~4절과 마태복음 5 : 31~32절과 마태복음 19 : 1~1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이다. 따라서 주석은 지면 사정으로 인해 이 본문들에만 한정될 것이다.

## Ⅳ. 논란의 핵심 구절에 대한 주석

### Ⅳ-1. 신명기 24 : 1~4절 주석

신명기 24장 1~4절의 구문을 도해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실제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명기 24 : 1~4절의 구문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כִּי־יִקַּח אִישׁ אִשָּׁה וּבְעָלָהּ וְהָיָה

אִם ־לֹא תִמְצָא־חֵן בְּעֵינָיו כִּי־מָצָא בָהּ עֶרְוַת דָּבָר

וְכָתַב לָהּ סֵפֶר כְּרִיתֻת וְנָתַן בְּיָדָהּ וְשִׁלְּחָהּ מִבֵּיתוֹ:

2. וְיָצְאָה מִבֵּיתוֹ וְהָלְכָה וְהָיְתָה לְאִישׁ־אַחֵר: (가정)

3. וּשְׂנֵאָהּ הָאִישׁ הָאַחֲרוֹן (구문)

וְכָתַב לָהּ סֵפֶר כְּרִיתֻת וְנָתַן בְּיָדָהּ וְשִׁלְּחָהּ מִבֵּיתוֹ

אוֹ כִי יָמוּת הָאִישׁ הָאַחֲרוֹן אֲשֶׁר־לְקָחָהּ לוֹ לְאִשָּׁה:

הַמְּאָה 4. לֹא־יוּכַל בַּעְלָהּ הָרִאשׁוֹן אֲשֶׁר־שִׁלְּחָהּ לָשׁוּב לְקַחְתָּהּ לִהְיוֹת לוֹ לְאִשָּׁה

אַחֲרֵי אֲשֶׁר

כִּי־תוֹעֵבָה הִוא לִפְנֵי יְהוָה

וְלֹא תַחֲטִיא אֶת־הָאָרֶץ אֲשֶׁר יְ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נַחֲלָה:

신명기 24 : 1~4절의 말씀은 두 파벌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구절이었다. 이들 두 학파는 샴마이와 힐렐이다. 이들은 아내를 내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보내야 한다는데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지만 신명기 24 : 1절에 있는 עֶרְוַת דָּבָר 라는 구절에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샴마이 학파는 עֶרְוַת דָּבָר 에서 벌거벗음이란 뜻을 지닌 עֶרְוָה 를 강조하여 음행의 이유를 지닌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낼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힐렐학파는 דָּבָר 에 강조점을 두어서 남편에게 거슬림이 된 모든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35] 그러나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다. 사실상 이 구절은 옛 앗시리아 결혼 계약에 비추어 볼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결함을 나타낼 수도 있다.[36] 그리고 이 구절은 신명기 23 : 13절에 언급된 수치스러운 일과 같은 부끄러운 행동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구절이 간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음죄는 이혼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37]

칼빈은 신명기 24 : 1절 주석에서 이혼 증서에 관한 주석을 다른 종교 개혁자들보다 비교적 더 잘 주석하고 있는데 그는 이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것이 이혼에 대한 법 제정이 아니라 남자의 완악함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로 보았다. 그래서 칼빈은 남편이 아내에게 써 준 그 증서가 아내의 정숙함을 오히려 입증했을 것이다고 생각했다. 어쨌던 간에 분명치 않은 위의 구절을 가지고 바리새 두 파벌이 서로 논쟁을 벌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의 이혼과 재혼의 관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한 명령이 아니다고 부정하셨고 단지 묵인하신 구절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묵인 즉, 이미 자행되고 있는 일을 전적으로 금했을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남자



들의 잔악한 범죄를 경계하여 이 관습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묵인하긴 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 매우 싫어하셔서 -원래 이것을 인정하신 바가 없지만- 이에 대해 말라기 2장에서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2절에 대한 한글 성경의 번역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번역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뜻을 찾아 볼 수 없다. 즉 2절의 말씀에서는 "되려니와"라는 허용의 의미로 번역될 여지를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다. 2절은 1절에서 제시된 가정문 אִם 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 본문은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라고 번역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진술이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 한글 성경은 3절에서는 잘 번역되어 있다. 즉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라고 하자"로 문장을 정리하면서 앞서 진술된 내용들이 가정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본문 주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1~3절과 4절과의 관계이다. 키너가 말하는 것처럼 1~3절은 이혼과 재혼을 인정하는 그러한 구절이 아니다.[38] 1~3절과 4절은 가정과 구체적 금지 조항으로 되어 있다. 즉 1~3절은 하나의 가정절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다른 근동지역에서 일어나던 관습에 익숙하여 이를 버젓이 도입하여 행하고 있던 관례를 예로 들고 있는 부분이다.[39] 이 본문은 1절에서 וְהָיְתָה ~ כִּי 까지 한 남자가 결혼을 한 평범한 경우를 말하고 나서 곧이어 가정법 אִם 이 새로운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40] 이 אִם 으로 시작하는 본문은 3절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1~3절은 규정을 제정하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4절에 나오는 것을 제정하기 위한 가정문이다. 이 가정문을 규정을 나타내는 본문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1~3절 보다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적절하다.

1~3절에서 가정적 상황을 제시한 후 4절에서는 강력한 부정 명령이 나오고 있다.[41] 즉 이혼한 여인이 재혼했을 경우 그리고 그 새남편이 죽은경우 다시 옛 아내를 맞아 들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본문은 1~3절에 있는 סֵפֶר כְּרִיתֻת (이혼증서)제도를 설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따라서 혹시 아내를 내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아내가 재혼한 경우에 재혼한 옛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

아 들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금지 사항이 틀림없다. 따라서 עֶרְוַת דָּבָר 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본문 4절에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혼한 여인은 이미 더럽혀 졌음을 אַחֲרֵי אֲשֶׁר הֻטַּמָּאָה 에서 나타내고 있다. 만약에 2절이 한글 성경처럼 번역된다면 하나님께서 재혼한 여인을 가리켜 "더럽혀 졌다"고 단정하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남편이 완악하여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혼 관계의 청산으로 인정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재혼을 더럽혀진 행위로 단정하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혼과 재혼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몹시 싫어하고 계심이 분명하다.

또한 כִּי־תוֹעֵבָה הִוא לִפְנֵי יְהוָה 에서는 어떤 행위가 야웨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지시 대명사가 הִוא 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본문의 한글 성경은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악한 것으로 여기게끔 해석되어 있는데 실제 행위의 악함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는 남성형 הוּא 가 아니라 여성형 הִוא 를 쓰고 있다.[42] 그렇다면 야웨 앞에서 가증한 행위는 재혼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데려오는 것이면서도 또한 이혼 당한 여인이 재혼한 것도 가증함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הִוא 는 바로 앞에 있는 구절 הֻטַּמָּאָה אַחֲרֵי אֲשֶׁר 를 즉 '여인이 더럽혀 진 후'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는 재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여인이 재혼한 것이 가증한 이유는 재혼은 간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 31~32에서 밝히는 바와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여인이 재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것이고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재혼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될 죄악인 것이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혼과 재혼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혼와 재혼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재혼한 여인을 절대로 다시 맞이 하여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4절 마지막 부분인 : מְכַלְכֵּלוֹא תַחֲטִיא אֶת־הָאָרֶץ אֲשֶׁר יְ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를 살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4절 중간 부분에 있는 더럽혀짐과 가증함은 여인의 재혼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4절에서는 또 한번의 강한 부정 명령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어는 2인칭 남성 단수 힙일 사역형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너는 그 땅에 죄를 가져 오지 말라"이다. 사역형은 주어가 상대방으로 무엇을 하도록 역할 하는 것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어렴풋이 재혼한 여인의 죄의 책임이 남편에게도 있음을 엿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 Ⅳ－2. 마 5 : 27~32절 주석

마태복음 5장 27~32을 하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내용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의 연결된 내용이라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예외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7~30은 누구나 인정하는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강경한 자세이다. 그런데 27절에서 시작되는 본문은 30절에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32절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28절에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첫번째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나서 32절에서는 더욱 경이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음행한 연고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 교사죄에 해당하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가 간음함이다고 밝히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27~28절에서 남자가 직접적으로 간음하는 경우이고 (*εμοιχευσεν*), 31~32절은 남자가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경우(*αυτην μοιχευθηναι*)와 그 여자와 재혼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것임을(*μοιχαται*)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παρεκτος λογου πορνειας*에 강조를 둔 것이 아니라 간음죄에 대한 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견해는 유대인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간음에 대한 규정이었다. 그들은 말라기 2장 14~1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비록 소수일지라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내어 버릴 때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혼을 간음이다고 하시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24 : 1~4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힌트를 엿볼 수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4 : 1~4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녀를 다시 결혼함으로 간음하게 하는 유혹에 넘겨 주었다고 함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5 : 32절에 따르면 이혼 그 자체가 간음이다고 하시며, "이혼 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마다 간음함이다"는 말씀은 이혼 후의 재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여자와 새 남편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버린 남자는 간음 교사죄를 지었다고 선포하신다. 따라서 신명기 24 : 4절의 말씀처럼 이들의 처사가 하나님앞에서 가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에서 말한 *παρεκτος λογου πορνειας*를 에라스무스와 그의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이혼과 재혼에 대한 하나의 예

외 조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παρεκτος λογου πορνειας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정당한 이혼의 근거로써가 아니라, 이 경우에 아내를 내어 버리는 행위로 인해 간음교사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교사죄를 짓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31~32절에서는 이혼이 간음죄임을 말하며 이혼을 하는자는 이혼 당하는 자에게 간음케 하는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음 교사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혼 당하는 여자가 παρεκτος를 한 경우이다. 따라서 παρεκτος λογου πορνειας를 는 정당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는 말씀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정당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 걸맞지 않는 유추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외 조항이 아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 19 : 9절과 연결하여 살펴 보아야 한다.

### Ⅳ-3. 마태복음 19 : 3~12절 주석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μη επι πορνεια이 απολυση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γαμηση에도 해당하는가이다. 즉 음행의 이유로 이혼만 가능한가 아니면 음행의 이유로 이혼 뿐만 아니라 재혼도 가능한가를 따지기 위해 문법적 구조를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Edgar와 같은 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43]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해야하는 것은 πορνεια이다. 즉 μη επι πορνει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가르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다.

πορνεια는 '팔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 πορνη와 관련이 있다. 이 단어의 배경에는 '돈이나 화폐를 받고 몸을 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πορνη라는 단어는 특별히 종들에게 사용되었고 "고용된 창녀"를 의미했다. 마태복음 5 : 32절과 19 : 9절에 나오는 πορνεια는 πορνη에서 나왔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매춘을 비롯한 이에 버금가는 성적인 방종을 포함하는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말한다.[44]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πορνεια를 간통과 같이 취급한다. 이러한 번역을 따를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샴마이의 가르침과 별다른 바가 없다.[45] 그러나 πορνεια는 일반적으로 간통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통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는 μοιχεια이다. 그리고 마태는 이들 두 단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마 15 : 19).[46] 예수님께서 샴마이학파를 편들어 간통의 경우 이혼을 허용하려고 의도했다면 예수님은 더 적절하고 분명한 용어 μοιχεια를 사용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간통을 포함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성적인 범죄에 근거해서라도 이혼을 허용하기 위해 더 포괄적인 용어로 πορνεια를 선택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47]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은 간통의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했던 샴마이보다 더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된다. πορνεια에 더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상호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예수님은 결혼의 항구성이 창조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도전 앞에서 예수님은 이혼을 강력하게 반대하셨다(마 19 : 6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랍비들 보다 더 관대한 입장을 취하였다면 예수님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대한 견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상반된다. 제자들은 10절에서 만약에 사람의 자기 아내에 대한 관계가 이같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좁고 엄격하고 강력한 관점을 취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πορνεια에 더 폭넓은 의미가 주어졌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 다른 πορνεια에 대한 인기있는 해석은 약혼 기간동안의 불성실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약혼은 법적인 계약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결혼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공식적인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파기될 수 있었다(신 20 : 7, 24 : 5).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은 만약 약혼녀가 대기 기간동안 불성실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약혼자가 그녀와 파혼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예외 구절은 약혼에만 적용될 수 있고 실질적인 결혼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혼할 부부의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최근에는 Carl Laney 같은 인물을 비롯해서 이 구절이 근친 상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48] 근친간의 결혼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혼은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이 예외 구절은 근친 결혼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특별히 레위기 18 : 6~18절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근거가 희박하다. 왜냐하면 에드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레위기 18장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간 상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친 상간은 레위기 18 : 28~29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백성 중에서 제명되는 악에 해당되었다. 엄밀한 차원에서 이같은 징벌은 사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일반적인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

다. 따라서 이 구절을 근친 상간적인 결혼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전반적인 문맥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인 매춘이나 그에 상응하는 성적 방종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예를 들면서 반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단호하게 못을 박고 있다.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9절에서 말한다. 따라서 9절에서 사용된 *πορνεια*는 최소한 샴마이 학파가 이혼의 근거로 내세우는 간통보다 더 제한된 의미라야 한다. 그럴 경우 이 말은 간통보다 훨씬 무분별한 매춘이나 그에 버금가는 성적 방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이 이혼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6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과 모순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이 구절이 강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9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라고 있다는데서 알 수 있다.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찐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 이 말을을 하는 제자들은 다름 아닌 "음행한 연고 외에"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은 왜 이와 같은 충격을 받았을까? 존 스토트 같은 이들은 이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힐렐학파의 견해에 익숙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샴마이파의 편을 든 것에 충격 받았다고 한다.[49] 그러나 이것은 근거없는 말이다. 이 당시에는 힐렐 보다는 샴마이파가 더 인기 있는 그룹이었다. 힐렐파는 사실상 1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그 인기도가 높아진다. 이 당시 유명한 유태인 학자 필로는 헬라 사상을 많이 수용한 다소 급진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혼에 대해 힐렐보다 훨씬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50]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샴마이파의 견해가 훨씬 지배적이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보다도 더 금욕적 성향을 지녔을 제자들이 왜 그렇게 놀랐을까?[51] 단지 간통이라면 가끔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로 인한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놀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놀랐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πορνεια*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매춘이나 그에 상응하는 성적 방종이라는 원래의 뜻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그리고 *μη επι πορνεια*는 매춘이나 이에 상응하는 성적 방종 —경우에 따라 수간을 포함해서—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러면 이 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로 제자들이 이해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사실상 이 말은 실제로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일려고 한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비록 당시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비롯한 타민족에게 사형권을 박탈했을지라도, 그러한 간부에게 심각한 징벌이 가해졌을 것이다.[52] 그러한 마당에 당시 유대인 여성들이 노예도 아니면서 매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매춘을 하지 않더라도 무분별한 성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이 같은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53]

이러한 배경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예외를 제시한다기 보다는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54] 이것은 제자들이 큰 충격 속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고 한 반응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사실상 아내가 매춘에 빠질 정도로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간음의 사실로 이미 이혼이 가능하고 충분한 보복적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마당에 말이다.

11~1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 이 말씀을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3~9절과 독립된 말씀으로 사제들의 금욕 생활을 예수님이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이것이 금욕 생활을 나타낸다면 고전 7 : 25절에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한 바울의 말과 모순이 된다. 여기에서 처녀는 단순히 미혼 여성이라기 보다는 새로 개종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혼자 사는 처녀이거나, 노처녀가 되도록 그리스도인 남자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으나 불신 남편을 두었다가 쫓겨난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의 경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전자가 더 설득력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께로 부터 받은 바 계명이 없다는 말이 가능한가? 혹 바울이 예수 승천 후에 다메섹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바울은 성만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암기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 가능할까? 더군다나 설사 바울이 제자들에게 들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9 : 12절과 상반된 진술을 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무오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11~12절의 말을 모른다고 하면 제자들도 몰랐다는 것이 되며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도 몰랐어야만 된다. 결국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도 바울

이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 금욕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의미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허락한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해야 하며 또 결혼한 이상은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못박음의 말이다.

이와같은 일관된 해석이 주어질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에 일치되기 위해서는 *πορνεια*가 매춘이나 이에 버금가는 성적 방종으로 원래 단어의 뜻 그대로 받아 들여야하며, 결국 이 말을 하신 의도는 허용적 차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혼의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 Ⅳ-4. 고린도전서 7장 주석 11, 15, 25, 39절 중심으로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는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7장에 이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의아스럽고 혼란스러운 딜레마에 빠진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고린도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난해한 본문인 경우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번역상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고린도전서 7장은 예수님께서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장 현실감 있게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 잘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제기한 상당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포함하고 있다. 그 증거는 고전 7 : 1절의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와 도입구절 *περι δε*의 반복적인 사용이다.[56]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린도 시(市)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줄로 안다. 고린도 시는 펠로폰네수스와 북쪽 헬라를 연결시켜 주는 육지의 한 좁은 골짜기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 격인 도시의 중심부는 동서를 이어주는 여행과 상업의 십자로였다. 고린도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주전 145년경 Liucius Mummius장군에 의해 폐허가 된 것을 쥴리어스 캐사르가 복구하였고 따라서 고린도는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고린도는 60만 내지 70만의 인구를 갖고 있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노예들이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부와 사치가 극에 달하였고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혼합주의가 발생했으며, 희랍인 로마인들 중에서도 이곳 고린도는 일반적으로 항구 도시들이 그런 것처럼 낮은 도덕 생활과 무너진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기존 종교를 퇴폐케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그와 같은 부도덕을 권장하기까지 하였다. 유명한 Pandemian Venus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1000여명의 창녀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였다. 바울이 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쯤에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고린도인들의 도덕성에 대해 그 도시 명에 붙여진 풍자적 말이 만들어져 있었다. *κορινθια κορη*, *κορινθιαζεθαι*, *κορινθιαστης*같은 말들어 있어서 당시 고린도인이 되라는 말은 창녀가 창부가 되라는 욕설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당시 로마세계에서는 도무지 비교할 데가 없는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가 바울과 다른 전도자에 의해 고린도에 전파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고린도의 퇴폐에 기인한 제반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도덕한 생활 모습이 교회에 까지 침투된 것을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고린도 시의 퇴폐 문화에 의도적으로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고, 성에 대하여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켜 독신주의를 옹호하는 그룹이 생겨났으며 성을 악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57]

개종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성도의 경우, 부도덕한 이교도 남편과의 생활에서 도덕적 종교적 갈등이 생겨났으며, 따라서 복잡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혼을 당하기도 하며 이혼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7 :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라.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도(이) 좋으나 그러나 결혼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보다 독신을 선호하는 듯한 자세는 이와 같은 배경이 뒤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사실상 8~9절에서 독신을 구태여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종종 고린도인의 견해에 동조하는 듯하면서 결론에서는 그들의 태도를 꾸짖으면서 그 견해와 태도를 고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8~10장의 우상의 제물에 관한 글은 이러한 유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울이 7장 초두에서 독신을 선호하는 그의 사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바울은 1절보다 2절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혼을 고려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가? 결혼한 후 개종한 성도들의 경우, 이혼을 허용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전 7 : 10~11절에서 결혼한 신자들에게 그들의 결혼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하고 있다. 사실상 바울은 단순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하여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찌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바울은 이 문제를 야기시킨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종하기 전에 결혼한 자들임을 12~14에서 보여주고 있다. 믿는 자끼리 결혼한 경우에는 이 말씀이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배제되어야 옳다.

여기에 제시된 바울의 입장은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혹시 헤어지더라도 그것은 이혼으로, 결혼 관계의 종결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살든지 다시 화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비록 그들이 이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재혼은 간음이며 이혼도 간음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에서 갈리는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는데 있다. 물론 이 경우도 불신자와 개종 이전에 결혼한 경우인데, 15절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은 10~14절과 사뭇 다르다. 10~14절은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이고, 15~24절은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불신 배우자에게 이혼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16~24절에 근거하여 이혼을 당한 성도가 유대인 배우자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58] 사실상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기간 동안 바울과 및 교회들에게 보여준 핍박의 정도를 보건대 개종한 배우자를 버리고도 남음직도 하다.

그러면 바울이 이교도 배우자를 버릴려는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하여 이혼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유대인이나 혹 다른 이교도로 부터 이혼당하는 경우에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가? 구속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보여준 태도와 바울 자신의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대조가 된다. 왜 바울은 여기서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을까? 비단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에베소서 5 : 31~32절에서 말한 것과도 완전히 모순된다.[59]

이 문제에 대해서는 J. Carl Laney의 주장이 타당하다. 나는 그가 고린도전서 7장 12~16절을 하나의 문단으로 보는 것을 동의할 수 없지만 그가 15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옳다고 생각한다.[60]

15절에서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 불신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를 고집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고집한다면 예수님의 명령과 바울의 가르침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는 성도



들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를 요청하고 있는가? 사실상 15절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버림받은 성도의 경우에 이혼과 재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정하여 다른 예외 조항－버려짐－을 더 하는 것은 사도적 혹은 목회적 특권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고 생각한다. Jay Adams가 이러한 견해를 가진 대표이다.[61]아담스의 해석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아주 인기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본문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먼저, 바울이 10~14절에서 금지시킨 것을 15절에서는 허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실상 바울은 신자와 신자의 결혼은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도 바울이 14에서 말한 바 불신 배우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화해가 이루어진 결혼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에게 재혼하는 것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고린도 교회에 빈번하게 일어났다면 고린도시의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는가? 고상한 윤리를 가르친 기독교도들이 고린도의 이교도와 다른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상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분파주의에 대해 호통을 치는 것으로 끝맺지만 5장 1~8절에서 음행한 자 －근친상간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가 신자라고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한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시의 혼잡한 성문화와 엄밀히 구분됨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그가 이혼 당할 때 구속받을 것이 없이 마음대로 하게 하라고 고린도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상 15절에서의 상황은 10~14절의 경우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이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바울은 이혼을 강요하는 남편에게 법정 싸움이나 남편을 끝까지 쫓아감으로 스스로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얽매이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5절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에서 "이런 일"은 이혼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혼과 관련된 다른 부수적인 일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τοιουτοις*는 보는 바와 같이 단수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복수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상호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혼이라는 단수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Carl Laney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혼에서 생겨나는 반대급

부와 관련된 것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많다. 즉 이러한 반대급부에 집착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화평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바울은 그들이 당하는 이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의 배우자와 반대급부를 놓고 싸우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7~24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반대급부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의 차원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낼 것을 말한다.[62]

물론 이 구절은 10~16절까지를 받을 수도 있다.[63] 그러나 바울이 이혼당하는 자들에게 반대급부에 얽매이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는 두가지 동기가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첫째는 갈리워짐을 그대로 감수함으로 인해서, 남편과 함께 하기를 고집함으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배교의 유혹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나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노예처럼 속박받는 비참에 처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일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혼으로 인한 상대급부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헤어진 남편을 지나치게 자극함으로 남편이 교회와 그 배우자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자극하지 않음으로 언젠가는 그 남편이 12~14절에 있는 개종의 경우처럼 가능성을 기대해 보고자 함일 것이다. 이것은 16절이 아주 명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64] 만약에 15절에 단순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구속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허용적 차원에서 해석된다면 15절과 16절은 확연히 드러나는 모순이 되며 그리고 이혼 후 재혼을 허용한다면 구태여 17~24절에서 위로의 말을 할 까닭이 없다. 혹자는 16절을 15절 앞에 있는 12~14절의 반복적 재강조라고 한다. 그러나 눈을 씻고 보라. 과연 바울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논증을 전개할 만큼 어리석은가? 따라서 15절이 이혼을 허용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 본문과는 일치할 수 없는 주장이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과 일치하는 견해를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39절에서도 나타난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결혼의 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죽음만이 종결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매춘과 이에 버금가는 성적 방종을 제외하고는 아내와 나뉘어질 수 없다고 선언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간음죄에 대한 사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아 시행해 온 오랜 전통이며, 예수님 시대에는 사형은 시키지 못했을지라도 간부에게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였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이혼의 불가능을 단언하시면서 죽음만이 결혼 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암시가 바울에게서 아주 분명해 진다. 하나님이 짝지우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의 최종이 고린도전서 7 : 39절이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아내를 싫어 하여 내어 버릴 지라도 자기는 결혼관계를 끝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는 것은 본인도 간음일 뿐 아니라 상대방도 간음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에서 주석한 본문을 근거하여 이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수시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왜곡시킨 것을 바르게 세워 안전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혼은 절대 불가능함을 선포하셨다. 혹 이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혼 관계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혼자 살든지 다시 화합해야 한다. 만약 신자가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간음이고, 버린자나 버림당한 자나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이러한 결혼 관계는 오직 죽음만이 종결 시킬 수 있다. πορνεα는 매춘이나 이와 버금가는 성적 방종을 말하며 마태복음 19 : 3~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허용적 차원이 아니라 불가능함의 역설적 표현이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한결같이 위의 규정을 교회에 적용시켰다.

## V. 현대적 적용

예수님은 분명히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지금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갈수록 이혼률이 높아가고 있고, 개인주의 팽창으로 교회의 간섭을 거부하며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려하지 않는 이 시대의 이혼하려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이혼을 만류하며 이를 교육시킬 것인가? 이미 이혼하여서 재혼을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근친 상간을 행하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신자의 경우 우리는 무엇을 조언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성경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각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외 규정을 보강할 것인가? 신실한 성도들은 성경을 왜곡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예외 규정을 조작하는데 반대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제 문제를 간략하게 함께 생각해 보자.

### V-1. 결혼에 대한 교회 교육의 강화

Lewis B. Smedes는 The Roformed Journal에 기고한 Divorce : an

ethical response[65]에서 기독교는 이혼의 정당성과 불허에 대한 논쟁을 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미 지금 세대는 이러한 논쟁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혼에 관한 성경 말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논쟁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더 이상 인본주의적 사고와 그들에 대한 막연한 동정적 차원에서 성경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각색해서는 안되며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고 이를 원리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논쟁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이에 기초하여 성도들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사실상 교회는 지금 결혼을 앞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에 대해 교육하기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다.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지만 도무지 결혼에 관해서는 겨우 한시간을 할애할까 말까하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혼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교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결혼 제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년 52주 예배에 참석해도 교회 출석을 강조하고 교회 일을 강조하기에 급급한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가정에 대해 아무런 선지자적 메세지가 흘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견실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바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목회자들은 결혼과 화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결혼을 앞둔 성도들과 이미 결혼한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시행해야만 한다. 회중들 앞에서의 설교들에서, 그리고 주일학교와 그외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서 우리는 결혼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가르쳐야 하며, 또한 배타적이고도 공약된, 평생 동안의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이상을 굳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맺은 바 결혼 언약에 신실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실성은 단순히 간통을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신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 언약은 엄숙한 배경 속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며, 배우자에게 전생을 서로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이다. 바로 이러한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는 이 언약 혹 맹세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다. 물론 말로는 언약－맹세－을 하지만 그 맹세의 실효성은 지극히 빈약하다. 그 이유는 갈수록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 신뢰하고자 하는 정신력이 빈곤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속에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유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 자신에게 지나치게 신뢰하게 되어 배우자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하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결혼 언약 －맹세를 지키도록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맹세를 지키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위있는 소리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개개인들은 이에 귀담아 들을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말씀의 권위를 높이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이에 근거하여 배우자들이 이 맹세에 대해 신실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며 또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회가 그들에게 권위 있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 해야 하며 또한 도덕성을 상실해서도 안될 것이다.

신실성은 또한 약속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 자신과 인격에 대한 신실성이다. 어떤 부부들은 결혼 생활 몇 년만에 결혼에 대한 환상은 깨어지고 빈껍질만 댕그라니 남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배우자들은 고통과 미움으로 가득찬 거친 황야를 호미로 일구는 듯한 비참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 젊은 부부들은 이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성이며 교회는 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지도해야만 한다. 모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부부가 평생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이다. 창세기 2 : 24절의 말씀은 부부가 하나됨이 따 놓은 당상이 아니라, 이제 이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부부는 의무감과 숙명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서로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이 결혼 언약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성이며 교회는 결혼을 앞둔 성도들과 이미 결혼한 성도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해야만 한다.

### Ⅴ－2. 화해적 봉사가 필요하다

외국의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결혼한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풀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TV에서 가정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초와 결혼 8～10년째 된 부부들이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충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교회들은 아직도 이 사역에 간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를 목회자에게 찾지 않고 자신의 친한 친구를 찾는다는 것을 목회자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양들이 목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다니! 우리

나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권위를 내세운다. 그러다보니 교인들이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을 엄두도 못 낸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러한 고민을 털어 놓았을 때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입방아질에 오르내릴까 두려워서, 또는 이를 스스로 수치로 여겨서 그냥 묻어 놓고 혼자 고민하다가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사실상 목회자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5 :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만 한다. 이렇게 노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고충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베풀 때, 그들은 갈등을 극복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다시 노력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갈등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할 것이고 성도의 교제도 이로써 자연스럽고 효과있게 시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화목케 하는 봉사를 효과적으로 담당해야만 한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있는 교인들에게 형제와 친구처럼 대화하고 감싸 안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며, 그리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회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야 하며, 그리고 화목적 봉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병상련의 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 Ⅴ－3. 불가피하게 배우자와 헤어져야만 하는 이들에 대한 바른 교훈과 교육이 필요하다.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될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별거를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대 교회는 상습적으로 간음하는 배우자를 둔 경우에 함께 살지 말고 헤어져 있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도록 교인들을 지도했다.

현대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과 관련된 죄를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 근친 상간, 동성 연애, 변태 성욕, 마약 상용 등등, 이러한 경우에 성도들은 초대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막상 헤어진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짊어진 멍에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혼자들에 대해서 냉담하다. 이혼자들은 이혼으로 인한 상처에서 크게 좌절감과 고통을 느끼지만 교회의 외면과 냉담함에 더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혼을 인정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배척해서는 안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수가성의 다섯 남편 가졌던 여인을 몸소 찾아가셔서 그녀를 포용하시고 성령 받을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녀와 함께하심을 잘 알고 있다. 5번씩 이혼당한 여인조차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감싸 안으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혼의 충격을 겪고 있는 형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이들에게 해야 할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먼저 교회는 이혼한 사람이 비록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혼 관계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가능한 최선을 다해 헤어진 배우자와 화해할 것을 권면해야 한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재혼하여 화목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리스도 한분 에게 소망을 두고 남겨진 가정을 성실히 유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이들에게 해야 할 또 하나는 이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만 바라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실리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상당수의 이혼자나 과부들은 사실상 허다하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년의 재정 중에서 단 한푼도 이들을 위해 책정하지 않고 말로만 그리스도안에서 신실할 것을 권고한다. 물론 이들의 모든 재정을 다 감당할 수야 없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노력이라도 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세속의 격랑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 Ⅵ. 결 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2 : 24절의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이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둘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불변의 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중에서 이혼하는 자를 싫어하셨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찜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 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찌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찌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궤사를 행치 말찌니라."(말 2 : 14~16)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2 : 24절의 말씀의 연장이며 또한 신명기 24 : 4절에서 이미 밝히셨던 말씀이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19 : 1~12절에서 새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못박아 말씀하신 내용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로마의 타락하여 무너진 가정 윤리에 대항하여 기독교인 가정을 사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결혼을 파괴하려는 모든 거짓에 대항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짝지운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어서는 안되고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이며,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한 바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본 논고에서 성경 주석을 통해, 초대 교회 교부들의 견해를 살펴봄으로 얻은 결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는 갈수록 개인주의에 빠져들어 조그만 구실로도 쉽사리 이혼하는 그러한 시대이다. 이러한 때에 현대의 교회들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존 스토트의 말처럼 온갖 구실을 다 동원하여 이혼을 허용하려는 바람들에 적극 항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66]

교회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서 사회의 흐름에 저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류를 타고 떠내려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부터 받은 바 고유한 권징을 행사함으로 교회가 세속의 풍습에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교회들은 결혼에 실패하여 버림받아 극한 슬픔을 안고 눈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알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깊은 동정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섣불리 재혼하려 들려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주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 ◆ 참고 문헌


### I. 성경

1. 성경 전서(서울 : 대한성서공회, 1989)
2.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240-01120, IBS-1983.
3. HOL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Nerson 746B
4. NOVUM TESTAMENTUM GREECK Nestle-Aland 26.
5.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 II. 주요참고도서

Dupont. Sommer, *The Essene Writings From Qumran*, G Vermes trans(New York : Basil Blakwell, 1962)

Ramm. Bernard L, *The Right, Good & Happy*(London : Word Books)

Keener. Craig S, *And Marriges Another*(Massahusetts : Hendrickson, 1991)

The Protestant Reviw, *Divorce, Desertion and Remarriage* (Australia, March, 1988)

Harrison. Everett F,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정성구 역(서울 : 세종문화사, 1984)

Grosheide. F. W, *Corinthians I*(Grand Rapids : Eerdmans, 1984)

Friedrich. G,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I*, G.Kittel ed(Grand Rapids : Eerdmans, 1968)

H. Wayne House(ed), *Divorce And Remarriage*(Ilinois : I. V. P., 1990)

Thompson. J. A, *Deuteronomy*(Illinois : I. V. P, 1974)

Pritchard. James B. (ed), *Ancient Near Eastern Tes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New Jersey : Princeton, 1969)

Adams. Jay E, *Marriage, Diorce, and Remarriage in the Bible* (Grand Rapids : Zondervan, 1980)

John Murray, *Principles of Conduct*(Grand Rapids : Eeerdmans, 1984)

Smedes. Lewis B, *Divorce : an ethical response*(The Reformed Jouranl, October 1976)

Augustine, "On Marriage and Concupiscenc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ume5(Grand Rapids : Eerdmans)

Jewett. Paul K, Divorce : *a theological statement*(The Reformed Jouranl, January 1977)

Hughes. Philip E, *Christian Ethics in Secular Society* (Pennsylbania : Baker, 1983)

Daly. Robert J, *Christian Biblical Ethics*(New York : Paulist Press, 1984)

Maston. T. B, *The Bible & Family relations*(Nashville : Broadman) 이석철 역,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서울 : 요단출판사, 1991)
The Ante－Nicene Fathers 2, 3, 10(Grand Rapids : Eerdmans, 1956)
Furnish. Victor Paul, *The Moral Teaching of Paul*(Nashville : Abingdon, 1985)
Beach. Waldo, *Christian Ethics in Practice*(North Carolina : John Knox Press, 1988)
Heth. William A and Gordon J. Wenham, *Jesus and Divorce*(Nashville : Nelson, 1984)
안영복, 성경히브리어문법(서울 : C. L. C, 1990)
이종윤, 신약개론(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8)
죤 스토트,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피터 와그너, 효과적인 교회성장, 권달천 역(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3)
박삼우, "재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교회와 생활 9집, 고려신학대학원부설 교회문제연구소편, 1992



## ◆ 각 주

1) 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o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 543.
2) 죤 스토트,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 333
3) John Murray, *Principles of Conduct*(Grand Rapids : Eerdmans, 1984), p. 45
4) Paul K. Jewett, *Divorce : a Theological statement*(The Reformed Journal. January 1977), p. 21～24.
5) William Heth, *Jesus and Divorce*(Nashville : Nelson, 1984), p. 19～22.
6) F. L. Cress, *The Early Christian Fathers*(London : Gerald Duckworth, 1960), 23－4. cit. William A. Heth, *Jesus and Divorce*(Tennessee : Nelson, 1985), p. 23～24.
7) *Ante－Nicene Fathers*, Mendate 4. 1(Grand Rapids : Eerdmans), See William A. Heth, *Jesus and Divorce*(Tennessee : Nelson, 1985), p. 23～24.
8) William Heth, *Jesus & Divorce*(Nashville : Nelson, 1984), p. 26～28.
9) "Legatio Pro Christians", The Ante－Nicene Fathers 2 : 147(Grand Rapids : Eerdmans, 1956)
10) William Heth, *Jesus and Divorce*(Kansas : Nerson, 984), p. 29.
11) 너희는 이르기를 어찜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찌기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찌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찌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궤사를 행치 말찌니라.
12)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줄로 생각하노라.
13) "Ad Autolycum", *Ante－Nicene Fathers 2 :* 115.
14) William Heth, *Jesus and Divorce*(Kansas : Nerson, 1984), p. 31.
15) Ireneus, "Adversus Haereses", 3. 3. 4, *The Ante－Nicene Fathers 1 :* 416.
16) Ireneus, "Adversus Haereses", 4. 15. 2, *The Ante－Nicene Fathers 1 :* 480.
17) Clement, "Commentary on Matthew 14 : 24", *The Ante－Nicene Fathers 10* : 511
18) Clement, "Stromata 3, 6, 50" *Ante－Nicene Fathers 10* : 511, See William Heth, *Jesus and Divorce*(Kansas : Nerson, 1984)
19) "Stromata 3, 12, 82", *Ante－Nicene Fathers 10*
20) "Le Saint", *Ancient Christian Writers 13 : 67*
21) "De Patientia 12", *Ante－Nicene Fathers 3 : 714～15*
22) "Ad Uxorem 2. 1", *Ancient Christian Writers* 13 : 23. cit. William Heth, *Jesus and Divorce*(Kansas : Nerson, 1984)
23) 고린도전서 7 : 39～40을 보라

24) Augustine, "On Marriages and Concupiscenc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ume* 5
25) Origen, "Commentary on Matthew 14 : 23" *The Ante-Nicene Fathers 10 : 510*
26) 에베소서 *5 : 31~32*절을 보라.
27) *William Heth, Jesus and Divorce*( Tennessee : Nelson, 1985 ), pp. 74~78.
28) Ibid., p. 80
29) Ibid., p. 82
30) Ibid., p. 82
31) Carl Laney, "No Divorce and No Re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Wayne House( ed ) ( Illinois : IVP, 1990 ), pp. 15~54
32) Ibid., pp. 15~54.
33) Ibid., pp. 15~54.
34) Ibid., pp.230~254.
35) Carl Laney, *Divorce and Remarriage* ( Illinois : IVP, 1990 ), p. 32.
36) James B. Pritchard( ed ),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543.
Old Assyrian, 19th century B. C. Text : B. Hrozny, Inscriptions Cunerformes dukultepe I
Laqipum has married Hatala, daughter of Enishru. In the country( i. e., Central Anatolia ) Laqipum may not marry another( woman )-( nut ) in the City ( i. e., Ashur ) he may marry a hierodule. If within two years she ( i. e., Hatala ) dose not provide him with offspring she herself will purchase a slavewoman, and later on, after she will have produced a child by him, he may then dispose of her, by sale whersoever he pleases should Laqipum choose to divorce her, he must pay five mians of silver; and should Hatala choose to divorce him, she must pay him five minas of silver, Witnesses : Masa, Ashurishtikal, Talia, Shupianika.
37) 매스턴 T. B,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이석철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91 ), p. 259.
38) Keener. Craig S, *And Marries Another*( Massachusetts : Hendrickson, 1991 ), p. 61.
39) 매스턴 T. B,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이석철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91 ), p. 259.
40) Thompson. J. A, Deuteronomy ( Illinois : I. V. P, 1974 ), pp. 243~245
41) 안영복, 성경 히브리어 문법(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p. 122.
' +미완료형'이 강한 혹은 무조건적 금지를 표현한다.
42) 매스턴 T. B,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이석철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91 ), p. 259.
43) Edgar, "Divorce & Remarrige for Adultery or Desertion", *Divorce and Remarriage*, Wayne House( ed ) ( Illinois : IVP, 1990 ), pp. 158~164.
44) Friedrich. G,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 Kittel( ed ) ( Grand Rapids : Eerdmans, 1968 ), 579~594.
45) 마태복음 5 : 21~48절을 참고
46) *εκ γαρ της καρδιας εξερχεται διαλογισμοι πονηροι, φονοι, μοιχειαι πορνειαι, κιμοπαι, φευδομαρτυριαι, βλασφημιαι*



47) Keener. Craig S, *And Marries Another*( Masschusetts : Hendrickson, 1991 ), pp. 28~37.
48) Carl Laney, "No Divorce & No Re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 Illinois : IVP, 1990 ), pp. 35~37
49) 죤 스토트,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pp. 339~346.
50) Keener. Craig S, *And Marries Another*( Masschusetts : Hendrickson, 1991 ), pp. 39~41.
51)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대 광야에서 금욕적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다.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심하게 비난했었다. 그리고 그는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다소 받았을 것이다. 이 쿰란 공동체는 이 당시 창세기 2 : 24절에 근거하여 두번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The Essence Writings from Qumran( New York : Meridian Books, 1962 ), 129를 보라.
52)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한 것을 성경은 그에게 의롭다고 칭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풍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 준다. 마 1 : 19절을 보라.
53) 피터 와그너, 효과적인 교회성장(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3 ), pp. 20~21.
이 당시 유대인들은 7계명에 따라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4) 이와 같은 역설적 표현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신 말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55) 고전 7 : 25; 8 : 1; 12 : 1; 16 : 1을 보라
56) 신성종, 신약개론(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 pp. 396~398.
57) 피터 와그너, 효과적인 교회성장, (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1 ), p. 88.
58) 17~23절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7장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이혼과 독신에 대하여 할애하고 있다. 그러한 마당에 바울이 할례와 무할례에 관한 논쟁을 도입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이 문단의 내용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가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득불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갈리워진 -내 생각에는 이들은 유대인이다- 자들에 대한 위로와 권고의 성격을 지닌 말로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훨씬 문맥이 잘 어울린다.
59) 에베소서 5 : 31~32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60) 이 문단 구조에 대하여 나는 10~14절이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5절에서 23절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61) Carl Laney, "No Divorce & No Re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 Illinois : IVP, 1990 ), pp. 43.
62) 혹자는 이 구절을 할례와 무할례에 관한 논쟁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은 7장에서 시종일관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17~24절은 15절에 대한 16절의 위로의 연장이다. 이러한 논리전개는 고린도전서 8~19장에서도 잘 나타난다.
63) Robert K Daly, *Christian Biblical Ethics*( New York : Paulist Press, 1984 ), pp. 250~251.

64) Grosheide. F. W, *Corinthians I*(Grand Rapids : Eerdmans, 1984), p. 167.
65) Smedes. Lewis B, *Divorce : an ethical response*(Jackson : The Reformed Journal), pp. 10~13.
66) 존 스토트,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 359.



# 나의 설교론

현 유 광
(교수, 실천신학)

나는 1977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해 6월 고시를 거쳐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지금부터 약 17년전의 일이다. 그 동안 나는 부교역자와 유학생으로서 약 10년, 그후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서 5년, 그리고 귀국하여 교수로서 이제 2년이 되어간다. 우리나라의 일반 목회자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의 경력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설교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또, 교회를 서너번 이동하다 보니, 대체로 내가 "은혜"받았던 설교를 반복해서 한 적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형편에서 "나의 설교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니 부끄럽다.

이제 나의 형편을 진솔하게 객관화시켜 이야기하므로써 먼저는 나 자신에게 유익하리라는 판단아래 만용을 부려본다. 또한 나 자신이 설교자로서 추구하는 바를—현재 그대로 다 하고 있지는 못하나—이야기하므로 보다 나은 말씀의 수종자로 성장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1. 본문 선택

어느 설교자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설교자가 설교본문을 택하는 것은 고통스럽기까지 한 과정이다. 설교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설교해 나가도 되겠지만, 설교자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본문선택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설교준비의 한 과정이다. 나는 설교본문을 정하는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sitz im Leben)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설교의 책임을 맡을 때마다 가진다. 때로는 쉽사리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때가 나에게는 더 많은 것 같다. 설교본문이 정해지지 않는 때의 마음의 고통은 매우 크다. 설교본문과